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20일

### CUOMO 주지사, 제1회 뉴욕주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 서밋 개최

*주지사가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제1회 뉴욕주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 원호부의 공공정부간 업무 담당 부장관 Dr. Tommy Sowers와 재향군인 그룹, 군사 기지, 교육 기관 및 민간 기업의 리더 및 대표자들이 함께 하여 뉴욕주가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이 주 전역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서밋은 뉴욕주의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에 종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취업, 교육, 혜택 및 정신건강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36개 재향군인 단체의 리더들, 뉴욕주 군사 기지의 대표자 11명, 교육 기관 대표자 28명, 민간 기업 간부 18명 및 기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군 제대자와 군인 가족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을 통해서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서밋은 더 많은 뉴욕주 재향군인들이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제대자와 군인 가족들에게 투자하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재건을 지속함에 따라 그들의 기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Dr. Tommy Sow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 제대자들 사이에 그들이 누려야 하는 보살핌과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는 VA가 업무를 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밋이 과시하듯이 Cuomo 지사는 주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 제대자를 기리고, 섬기며 그들에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뉴욕주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Korean

뉴욕주 원호과 과장인 Eric J. Hesse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를 대표하여 재향군인 담당자로 복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욕커들은 오래되고 자랑스러운 군 복무 전통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군 제대자 군인 가족 서밋을 개최하신 Cuomo 지사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서밋은 뉴욕주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의 희생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서밋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재건하며, 모든 퇴역 및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을 아우르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확대하였습니다. 뉴욕주는 군 제대자와 군인 가족들이 뉴욕주의 경제, 레크레이션 및 기회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큰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뉴욕주 군무 국장인 Patrick Murphy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뉴욕주 방위군 남녀를 대표할 기회를 환영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자신을 우리 주의 재향군인으로 치고 있거나 현역으로 복무하였습니다. 퇴역 및 현역 군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이 분들이 뉴욕주에 가져오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하는 주정부라는 Cuomo 지사의 비전. 우리의 군 제대자 및 남녀 군인들은 우리나라에 봉사하였으며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서밋은 Cuomo 지사가 그들을 인정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뉴욕주는 북동부 Fort Drum에 최대의 군사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8,000명의 군인과 또 다른 18,000명의 군인 가족뿐만 아니라 4,000명이 조금 안 되는 민간인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가장 오래된 사관학교인 미 육군사관학교를 West Point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년 약 4,400명의 미래의 육군 장교를 양성합니다.

Fort Drum 바깥에는 또 다른 3,600명의 현역 군인들이 있고 뉴욕주 방위 육군 및 공군들은 합쳐서 16,000명의 남녀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예비군(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예비군)은 그 대열 속에 또 다른 14,500명의 뉴욕커들을 두고 있습니다.

## 뉴욕주 군 제대자 및 군인 커뮤니티 개요

뉴욕주에는 약 900,000명의 재향군인들이 있습니다. 72%가 전투 기간 중에 복무하였습니다. 약 88,000명의 뉴욕커들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에서 복무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약 30,000명의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추가 30,000명의 방위군 및 예비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및 플로리다 뒤를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수의 군 제대자 소유 소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뉴욕주는 큰 퇴역 및 현역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3대 현역 군사 시설:

- Fort Drum (Watertown, NY 인근)
- Fort Hamilton (Brooklyn, NY)
- 미국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t, NY)

소규모 시설로는 Ballston Spa 소재 해군핵력훈련소, Watervliet 병기창, Kings Point 소재 미국 Merchants Marine Academy, Niagara Falls 소재 공군 예비기지가 있습니다.

### 취업 및 경제적 기회

오늘의 서밋에서 주지사는 뉴욕주의 군 제대자 및 군인 가족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 • **군 제대자 계약 프로그램**

Cuomo 지사와 주 의회는 주정부 계약에 복무 관련 장애를 가진 군 제대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의한 참여를 위해 전주 6% 목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교하면 연방정부가 군 제대자 소유 기업에 계약을 주는 목표는 겨우 3%이며 전국의 다른 주들은 이러한 소기업에 계약을 떼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 **“Experience Counts(경험이 중요하다)” 확대**

Cuomo 지사의 “Experience Counts” 프로그램은 재향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배우자도 커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이 신규 추가로 군인 배우자들은 다른 주로부터 뉴욕주의 여러 전문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면허 및 훈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Troops-to-Energy(군대로부터 에너지로) 일자리 프로그램**

전기 및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들은 퇴역 군인들을 유틸리티 산업의 가용 일자리에 배치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전주적 노력 조율에 합의하였습니다.

#### •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 군 제대자 요소 추가**

Cuomo 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들은 각각 프로젝트 선정시 협의회가 군 제대자를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 군필자 실무그룹을 창설할 것입니다.

#### • **55-c 적격 직원을 취업 기회에 연결**

뉴욕주 공무원부는 적격 상이군인들이 주정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새로운 웹 포털을 만들 것입니다. 종전에는 적격 상이군인들과 주정부 일자리를 연결하는 통일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 주택

Cuomo 지사는 또한 군 제대자와 군인 가족들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SONYMA로부터의 5000만 달러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 **• 퇴역군인용 주택을 위한 SONYMA의 5000만 달러 약속**

뉴욕주 모기지국(SONYMA)은 퇴역 및 현역 군인들이 SONYMA 모기지에 부과되는 이미 낮은 이자율 보다 0.375% 아래의 이자율로 고정율 모기지를 계약금 지원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5000만 달러를 약속하였습니다. SONYMA가 채우는 자본 풀은 지금부터 2014년 재향군인의 날까지 또는 모든 가용 자금이 사용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명예제대 예비군 또는 주방위군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교육

또한 오늘의 서밋은 군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SUNY 및 CUNY 기관들을 군 제대자들에게 더욱 부담 없도록 만드는 데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입법을 발표하였습니다:

### **• 군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에 대한 주간 협정에 뉴욕주가 참여**

Cuomo 지사는 군인 가족이 자주 이사함으로써 전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교육 복리를 지키기 위한 전국적 이니셔티브인 군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에 대한 주간 협정에 뉴욕주의 참여를 허용하는 입법을 발표하였습니다.

### **• 모든 SUNY 및 CUNY 대학 및 대학교에서 군 제대자들을 위해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 제공**

주지사가 발의한 법률에 의거 뉴욕주립대학교와 뉴욕시립대학교는 연방 G.I. 법안을 활용하여 그들 시스템 내의 학교에 다니는 제대자들을 위해 주민 요건을 면제할 것입니다. 등록금이 더 낮은 거주자 요율로 설정되면 모든 등록금은 G.I. 법안의 대상이 되어 제대자들이 미국 최대의 종합 공립대학 및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 **• 제대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SafeTalk 훈련 실시**

통합 콜센터 및 원호과의 전직원들은 정신건강실의 자살 인식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 연방 급여

### • 연방 청구 미처리분을 종결짓기 위한 타격대 창설

Cuomo 지사는 뉴욕주 퇴역 군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연방 장애 청구를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전주적 “타격대”의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United War Veterans Council, Health Research Incorporated 및 뉴욕주 원호과의 공공-민간 제휴를 통해 뉴욕주는 미국 원호부(VA) 지역실들의 보상금 신청서 처리를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재향군인들은 VA 장애 보상금 결정을 위해 현재 평균적으로 5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약 12,000건의 미결 VA 장애 주장이 있는 데 그 중 다수는 2년 이상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타격대”는 뉴욕주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이 이 밀린 일을 빠져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 급여

### • 골드스타 부모 연금의 소득 제한 철폐

Cuomo 지사는 골드스타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골드스타 부모에게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전투 부상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가족에게 장례 지원

Cuomo 지사는 전투에서 사망하는 군인을 위한 매장 수당을 확대하여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그러한 부상으로 인해 전투 지역 바깥에서 사망하는 군인들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서비스 조율

### • 제대자, 현역 및 그 가족을 위한 협의회

Cuomo 지사는 주정부 서비스를 제대자, 현역 및 그 가족에게 맞춤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 주 기관들이 군 복무에 대해 문의하고 정보를 원호과와 공유할 것을 요구

Cuomo 지사는 주 기관들이 양식, 등록서 또는 기타 고객 대면 접촉점에서 “귀하 또는 가족이 군에서 복무하였습니까?”라고 묻고 그 정보를 원호과와 공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데이터 공유로 제대자와 가족들은 광범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기관들에게 재향군인 연락관의 선임을 요구**

Cuomo 지사는 각 뉴욕주 기관들에게 제대자 및 군인 가족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신규 혜택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재향군인 연락관의 선임을 위한 새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대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로스쿨 컨소시움**

Albany Law School과 New York Law School은 뉴욕주(지사실 및 원호과)와 제휴하여 어떻게 하면 뉴욕주의 15개 로스쿨들이 주의 제대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과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봉사 및 자선의 중요성 강조**

New York State Health Foundation은 군 제대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뒷받침의 중요성과 이러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자선단체 및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

**•장애 퇴역군인들을 위해 평생 주립공원 입장권 제공**

Cuomo 지사는 적격 장애 퇴역군인들을 위해 뉴욕주립공원 평생 무료 입장 및 무료 또는 할인된 그린피, 캠핑 및 기타 많은 공원 활동을 위한 “평생 자유 패스”를 발표하였습니다.

**•퇴역군인들을 위한 무료 낚시일 제정**

뉴욕주 환경보존부는 재향군인 단체들과 제휴하여 퇴역 및 현역 군인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4차례의 무료 낚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상원 공동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현역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의 공헌 및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데, 본인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서밋을 개최한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본인의 동료들과 저는 재향군인국토보안군사업무 위원회 의장인 Greg Ball 상원의원의 주도로 재향군인들이 당연한 혜택, 지원 시스템 및 기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상원 공동리더인 Jeff Kl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세대의 제대자들이 전투에서 귀향함에 따라 우리는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이 영웅들과 그 가족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장애 재향군인들이 소매를 걷어 부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 소유자로서의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작년에 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는 자랑스럽게도 최초의 “Jobs for Heroes” 세금 감면을 도입하였는데 금년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 흥분됩니다. 본인은 오늘의 재향군인 서밋 개최와 모든 재향군인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Cuomo 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살하고, 외상성 뇌손상, PTSD 및 MST로 고통 받고, 집이 없어 빈곤 속에 사는 전투 퇴역군인들의 단순 숫자는 치욕스러우며 모든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이 용감한 남녀들이 여기 미국의 셀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워 보호한 민간인 생활로의 이행을 시작함에 따라 그들이 귀향시 넘을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사, 상원의 카운터파트, 하원의 대표단 및 워싱턴 행정부와 협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Greg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제대자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초당적인 방식으로 일한 리더인 Andrew Cuomo 지사와 함께 하여 영광입니다. 본인은 이 매우 중요한 서밋에서 우리의 군 제대자와 그 가족들의 니즈에 전주적 관심을 불러모은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남녀 젊은이들이 오른손을 들어 자신들이 기꺼이 미합중국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버릴 것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정부 또는 한 국가로서 이러한 남녀 젊은이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주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행이며 본인은 뉴욕주의 영웅들에게 훌륭한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Felix Ortiz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재향군인 서밋은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희생한 남녀들을 향한 우리의 봉사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원, 주지사 및 우리의 상원 파트너들은 우리 재향군인들이 민간인 생활로의 어려운 복귀를 혼자서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 교장인 Robert L. Caslen 중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와 Fort Drum 소재 제10 산악사단 등 뉴욕주에서 복무해왔습니다. 본인은 뉴요커들이 미국 군인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였는데 Cuomo 지사가 이 최초의 제대자 및 군인 가족 서밋을 개최하여 매우 기쁩니다. 육군에는 한 번 군인은 언제나 군인이며 각 군인의 힘은 가족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의 남녀 군인들과 그 가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Veterans Outreach Center, Inc.의 전회장인 Patricia D. Marks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공공 민간 제휴의 이점을 통해 재향군인 이웃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미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우리나라를 섬긴 이 남녀들의 교육,

취업 및 안녕의 문을 열 수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우리 각자의 뒷뜰에서 지속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뉴욕주의 843,480명 재향군인 모두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향군인 공동체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이러한 주체들을 연결하는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New York State Council Vietnam Veterans of America의 회장 Ned D. Foot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Council Vietnam Veterans of America는 Cuomo 지사의 퇴역군인 및 군인 가족 서밋에 참여하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이 타입의 서밋 참여로 우리는 한 세대의 퇴역군인들이 다른 세대의 퇴역군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 모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Veterans Outreach Center의 Jocene Henderson 미국 퇴역 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ochester 지역에서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들과 같이 일한 우리의 4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주지사의 이 서밋이 지지 서비스의 지속적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의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들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기를 기대합니다.”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y Veteran Service Officers, Inc.의 회장 Samuel J. H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y Veteran Service Officers, Inc.는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 서밋에서 토의할 정보와 옹호 이슈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재향군인 이슈에 대한 대화를 실시하는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뉴욕시 Veterans Mental Health Coalition의 회장 Scott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두를 산 정상에 모으는 것은 베이스캠프처럼 중요한 필수 시야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재향군인들과 함께 개인 및 단체들이 길고 헌신적인 등산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지속적 노력을 고취한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외국전쟁 참전용사과 과장 Michael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6만 여명 외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대표하여 본인은 이 서밋을 개최한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리더들이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이 직면한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 종류 최초의 베테랑 서밋은 우리가 뉴욕주에 미래의 프로그램과 법안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VFW는 참전용사들이 당연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리더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nited War Veterans Council 회장 겸 뉴욕시 재향군인 자문단 단장인 Vince McGow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ited War Veterans는 뉴욕주와 제휴하여 재향군인과 군인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에서 환경을 이롭게 하고 퇴역군인을 고용하며 우리나라를 섬긴 남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44,000명 군 제대자들의 뉴욕주 복귀를 준비시켜 뉴욕주를 이미 고향이라고 부르는 수 십만 명에 합류시키는 이 서밋을 개최한 Andrew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Korean



Iraq and Afghanistan Veterans of America의 창립자 겸 CEO인 Paul Rieckhoff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최장의 전쟁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우리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의 걱정과 근심에 재집중하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전국적 조직으로 창립되어 본부가 뉴욕시에 있는 IAVA는 뉴욕주 리더십이 이 집중을 깨닫는 것을 보니 기쁘며 우리는 향후에도 우리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해 주지사 및 오늘 Albany의 모든 참석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North Shore-LIJ Health System의 군사제대군인 연락서비스실 Andrew S. Roberts 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서밋을 개최한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군사 요원, 제대군인 및 그 가족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이 귀향할 때 성공적으로 재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North Shore-LIJ는 2006년 이래 군 제대자와 그 가족들에게 11,000회 이상의 행동건강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우리가 섬기는 커뮤니티의 다른 분들과 협력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